

한우지조금

www.hanwooboard.or.kr

10

2014. Vol 108



기획특집 | 추석 한우시장 결산 이슈1 | 한우산업 발전법 이슈2 | 영연방 3개국 FTA 대책 발표
포커스1 | 한우 뼈 건강기능성 연구 포커스2 | 축산물 부정인식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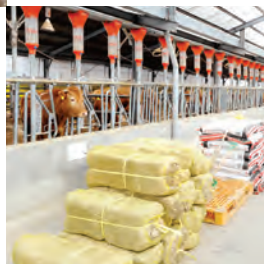
04



08



12



17



03 명사초청 메시지

유성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04-07 기획특집

추석 한우시장 결산

08-09 현장르포

축사시설현대화 'OK목장'을 찾아서

10-11 특별기고

전기자극을 통한 한우고기 맛 개선방안

12-13 이슈 1

한우산업 발전법

14-15 이슈 2

영연방 3개국 FTA 대책 발표

16 포커스 1

한우 뼈 건강기능성 연구

17 포커스 2

축산물 부정인식 개선사업

18-20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21 관측&통계

10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22 Bravo! Life!

말뼉 서비스

23 애독자코너



힘들고 어려운 시간...시름 깊어
농·축산업 어려움 개선위해 노력

축산농가 다시 웃는 그날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
연합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지나
고 어느덧 가을입니다. 올 한
해는 세월호 참사, 쌀 관세화
문제, 한·중 FTA(자유무역협
정) 문제 등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우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정성을 다해 키워낸 한우와 축산
물이 수급 불균형으로 제값도 받지 못하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물 수입 증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가뜩이나 고
사상태인 축산농가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국
내산 축산물을 먹기도 어려워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농도인 전라북도 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정
읍시장 시절부터 농·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
며, 또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야당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
업분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우리
농민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고민하
고 호흡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소식지가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가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
이 되어주는 공감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이른 추석...정육·가공품 매출 증가 대형마트 울고 백화점·온라인업계 웃었다

‘한우114’ 할인몰 괄목할만한 성장세

부산물 판매 부진은 여전히 문제
뼈다귀·내장부위 개별적 대책마련해야

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대목이기도한 추석시장이 마무리 됐다. 올 추석 대목 한우시장은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정육 및 가공품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선물세트 상품군에 따라 대형마트는 울고, 백화점과 온라인업계는 웃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선물세트는 백화점에서, 저가의 선물세트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두드러지면서 소비의 양극화와 더불어 판매처의 양극화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부산물 판매 부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골, 잡뼈 등 뼈다귀 부위와 간, 천엽 등 내장 부위의 개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 한우시장을 결산했다.



백화점, 10%이상 매출 신장

백화점업계는 이번 추석대목에 전년대비 10%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지난 8월 하순부터 시작한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지난해 추석보다 증가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축산부문에서 10.7%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정육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

다 11.8%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한우 등 주요 선물세트 판매가 매출을 주도했다”면서 “지난해보다 대량구매가 늘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축산부문 매출이 11.7% 증가했다.



대형마트, 고가 선물세트 판매 부진

반면 장기화되고 있는 불경기로 대형마트는 추석 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에 부진을 면치 못해 된서리를 맞았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비교적 비싼 선물로 인식돼 인기는 높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화된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보다는 저렴한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구가한 분위기가 여실히 반영됐다.

이에 따라 축산물 선물세트도 정육이나 육우혼합세트 등 실속형 상품이 강세를 보인 반면 세트당 15만원대를 호가하는 한우 갈비세트 등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이마트의 경우 전체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0.3% 신장

에 그친 가운데 혼합·육우세트 매출은 31%나 늘었다. 반면 한우 갈비세트는 전년대비 19%나 매출이 감소했다.

김태희 이마트 대리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혼합·육우세트의 판매 신장세가 두드러졌다”며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체 대량 주문 감소, 구이용 선호 등 수요 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롯데마트는 올 추석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소폭 감

소한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쇠고기 선물세트 매출은 6.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하며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호중 홈플러스 과장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정육세트, 혼합선물세트 등 실속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인 반면 한우 갈비 등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추석 판매실적에서도 나타났는데 농협목우촌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3만세트가량이 더 많은 40만세트가 판매된 반면 한우고기세트는 44만1,000세트로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2만1,000세트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농협안심축산분사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고가 및 저가 세트 판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우고기 역시 백화점의 고가 프리미엄 판매는 증가한 반면 농협 마트의 중·저가세트는 판매액이 12.3%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우114 등 온라인 주문 증가

대형마트의 축산물 판매가 부진했던 것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축산물 판매는 호황을 누렸다. 특히 지난 5월 문을 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온라인직거래장터 한우114 할인몰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쇼핑몰의 추석 축산물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년동기대비 10~20%까지 판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추석특수를 크게 누리지 못한 대형마트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대목이다.

지마켓의 경우는 축산물 판매가 전체적으로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13% 성장해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육우와 돼지고기는 모두 17% 이상의 판매율 신장을 보였다. 오리고기와 기타육류도 14% 가량 판매율이 올랐으며 가장 두드러진 판매율 신장은 닭



고기 부분으로 27% 가량 판매고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추석 선물의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매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온라인쇼핑몰로 주문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우114 할인몰도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는데 오픈 이후 석달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으며 한우 선물세트 및 기타 부위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한우114 할인몰의 지난 5~9월 판매액은 1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추석 선물세트로 판매된 8~9월 매출은 7,00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한우자조금은 추석 선물세트로 한우가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우114 할인몰이 온라인 직거래방식으로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이 포함된 중간과정을 없애 시중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이 같은 성장세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우114 할인몰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는 한우먹는날, 영월동강한우, 충체보리한우, 고산미소한우, 녹색한우, 명실상감한우, 의성 마늘소, 영주한우, 경주천년한우 등 9개 브랜드업체이며 한우 자조금은 차후 참여업체를 추가로 모집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물 적체 여전히 심각

이와 함께 한우 부산물은 여전히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쌓이는 양상을 빚으면서 사육농가는 물론 유통업체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한우 400마리 이상의 물량을 유통시키고 있는 마장동축산물시장의 경우 최근 한우 부산물과 관련해 판매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골, 잡뼈 등 뼈다귀 종류와 간, 천엽 등의 내장부위 판매 부진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철 마장축산물시장우육협회장은 “가구 규모와 식습관 등의 변화로 오래 끓여야 하는 사골 곰

탕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며 “곰탕 액기스 등의 가공공장을 마련해 소비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렁탕 체인점, 일반 음식점 등을 통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장 부위도 판매 부진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 부산물을 취급하는 김기복 쌍둥이네 대표는 “최근 모 방송에서 간을 잘못 먹으면 위험하다는 내용을 보도된 이후 식당, 소매점 등의 간, 천엽 주문이 크게 감소했다”며 “곰창집 등에서도 간, 천엽 대신 차돌박이나 육회 등으로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유통점의 경우 일일 평균 20여개의 간, 천엽을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판매가 5개 미만으로 줄어 적자 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찬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전무는 “최근에 간, 천엽 등의 부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를 진작시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물의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우협회는 부산물 유통 개선 방안을 조사 할 방침이며, 한우자조금은 연구용역(16page 참고)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 소비 부진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을 해소하고자 축산자조금이 연합하여 ‘축산물 및 부산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17page 참고), 각종 언론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㉞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생산효율 개선 '1석2조'

자부담 줄여야 많은 농가 신청할 듯
지원품목 다양화...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필요



열악한 한우사육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사가 10년이 넘으니 많이 노후돼 재보수가 필요한 찰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해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보수는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축산시설을 도입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생산효율을 물론 노동력 절감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본 강원도 횡성의 윤복만 OK목장 대표를 만났다.

노후화 된 우사 교체에 제격

1997년 IMF의 찬바람이 불던 시기, 식품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윤 대표도 찬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전부터 월급을 쪼개 아버지가 운영하던 우사에 한우를 입식했었는데 IMF로 인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산업에 발을 담갔다. 80마리 가량으로 한우사육을 시작해 열심히 개량하며 한우농가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할 때 즈음 우사가 10년이 넘다보니 우방의 철근이 휘기 시작하고, 지붕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재보수가 필요할 시기에 때마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알게 됐고, 5,800만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그는 지원금을 통해 낡아 부서지기 시작한 지붕을 전면 교체하고, 그 위에 차양막을 설치해 나무 그늘과 같은 효과를 연출했다. 이로 인해 뜨거운 여름에도 우사는 시원해 한우의 스트레스가 줄



어들었고, 사료섭취도 일정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당시 1대당 15만원 가량의 자동급이기 280대를 설치해 한우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섭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료를 관리했고, 출하 시 등급, 출하체중의 편차를 줄여 일



다양한 기술 접목, 농가 필요정책돼야

한편 현대화사업의 아쉬움도 토로하며 개선점도 말했다.

윤 대표는 “현대화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20%가량 되고, 용자가 50~80%가량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줄여 농가들이 더욱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

정한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동급이기 이외에 조사료 자동급이기를 별도로 설치해 소에게 손쉽게 조사료를 급여, 노동력 절감에 한몫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연간 100~120마리 가량을 출하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거세우는 90%, 암소는 75%에 달한다.

방역에도 일조하는 개체 잠금 장치, 정부가 나서야

현재 번식 200마리, 비육 150마리 등 총 350마리 가량을 키우는 윤 대표는 개체 잠금 장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설치한 개체 잠금 장치가 방역에도 큰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소 한 마리 주사하려면 몇 십분 걸리고, 부상의 우려도 크다. 350마리를 다 하려면 하루, 이틀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개체 잠금 장치를 사용하면 전체를 집중해도 2~3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FMD, IBR, 아까바네 등 한우농가들이 일년 동안 소에게 백신을 놓는 횟수는 6차례 이상 될 것이며, 수정, 감정, 거세, 브루셀라 체혈 검사 등 소를 접촉해 작업하는 횟수는 수차례 이상 될 것인데 개체 잠금 장치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부담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붕재질인 슬레이트, FRP, PET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처리 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쉽게 교체할 수 없으니 노후화된 지붕 폐기물의 처리비용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그는 현재 횡성군 지부장을 역임 중으로 횡성군지부에 정책, 사료, 조사료, 유통 등 6개 분과를 설치해 지역내 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수렴하고 있는 농가의 의견으로는 태양열시설 설치, 혹서기 대비 기술 개발 등으로 신기술 접목 시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이러한 축사시설의 신제품 접목에 일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㉞



‘부드러운 식품시대’ 한우고기 연도개선 필요 농가, 개량·근내지방도 축적 함께 고민해야



전북대학교 황인호 교수

전기자극법은 무엇이고 왜 하는가?

고기생산에서 전기자극기법은 도축직후 가축에게 5볼트에서 많게는 1,500 볼트의 전류를 몇 초에서 길게는 1~2분 동안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도축된 가축의 근육 대사를 촉진해 근육의 저온단축을 막거나 숙성을 가속화해 고기의 연도를 개선시킨다.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한 전기자극 방법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 산업적 이용은 1970년대 초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자극법이 한우의 육질을 개선한다고 1990년대부터 보고돼 2000년 중반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보고서와 특허가 출원됐다. 하지만 왜 한우산업에서는 육질개선을 위한 전기자극법이 산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와 활용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왜 안심을 좋아하는가?

부분육 생산량 중 우둔, 설도, 앞다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경매 가격은 등심가격의 약 32~40%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왜 이렇게 소비자들은 특정 부위의 고기를 선호하지 않을까? 혹자는 구이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저지방 부위는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심의 경우 근내지방(약 11.4%)은 비선호부위의 대표 근육인 설깃살

(약 14.6%)보다 낮지만 소비자들은 안심을 선호하고 평균 경매가격도 약 3배가량 높게 유통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우둔이나 설도같은 부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근내지방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우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한우의 비선호 부위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질긴 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특히 어린이의 소비자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부드러운 식품시대”라고 설명되는 ‘soft-food’ 시대의 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또한 국내 쇠고기 소비자들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와 기타 일상음식들의 끊임없는 조직감 개선으로 국내소비자들은 부드러운 음식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고기의 품질편차는?

쇠고기의 맛과 관련된 특성은 크게 연도, 향미, 다즙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우고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이러한 품질 특성의 편차가 개체간(예 등급판정이 높은 소와 낮은 소) 또는 소 한 마리 내에서 104개의 근육간(예 선호 부위와 비선호 부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향미나 다즙성은 개체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도의 경우 개체간 편차가 아주 크고, 소 한 마리내에서도 근육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쇠고기 선진국에서는 연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쇠고기 산업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향미나 다즙성과 같은 맛 형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가규모가 작고, 개량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의 경우 연도 편차가 다른 쇠고기 수출국에 비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 호주산 수입육의 경우 고기의 연화를 위해 전기자극 처리를 기본 도축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까지 도달하려면 냉장상태에서 18~30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연화와 숙성이 완료된 상태로 연도 편차가 큰 한우고기와 경쟁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가 더 맛있다고 반응한다.

한우산업에서 전기자극의 경제적 효과는?

한국 소비자들은 한우고기의 품질(맛)을 판단할 때 고기의 연한정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 1kg의 질긴정도를 낮추려면 채끝과 설치살의 경우 각각 약 7일과 14일 정도의 냉장숙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정도(약 1kg)의 연도개선을 위해서는 근내지방이 약 4.2%가 필요하고 약 5개월의 사육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필자와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축 후 약 1분동안 전기자극처리 시 거세우 설깃육의 도축 후 2일 뒤 전단력이 1.5kg 감소했으며, 숙성 14일에도 대조구보다 1.2kg 낮은 전단력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판단만으로도 전기자극은 고기의 연도를 개선하는데 아주 값싸게 활용하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한우 채끝과 설깃육의 연도(전단력)에 미치는 전기자극효과

(황 등, 2013)

	도축후2일		숙성 14일	
	대조구	전기자극	대조구	전기자극
채끝육	5.16	4.57	2.65	2.48
설깃육	6.85	5.35	5.58	4.38

왜 전기자극법이 활용되지 못하는가?

이러한 전기자극 기술들은 농진청에 의해 이미 개발되고 특허화 돼 있는데 왜 한우산업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 및 유통에서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쇠고기 생산업자가 도축장 및 유통채널을 함께 공유해 소비자에게 쇠고기 맛을 보증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산업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 농가들의 수익구조는 근내지방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축업자 또한 이러한 전기자극처리가 새로운 일을 발생시킬 뿐 본인들의 수익과 무관하다.

한우산업에서 전기자극법 활용이 직접적인 농가 소득증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우산업 전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한우고기 연도 개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부드러운 고기를 요구하는 소비자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면 전기자극처리법은 아주 값싸고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식품들은 부드러운 조직감을 갖도록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부드러운 음식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음식’ 시대에 한우고기의 연도개선의 속도가 개량으로 또는 근내지방도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또한 한우농가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㉞



한우산업 체질강화...종합 발전계획 수립 국가산업으로 육성 법제화 추진

잇따른 축산 강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우를 비롯한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해 국가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을 지역구로 두

고 있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 13일 대표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이 바로 그것. '한우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박 의원으로부터 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한우산업의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농식품부 장관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 등의 시장개방에 따른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생산유지와 송아지 번식기반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산업의 현황과 수급 등에 대한 전망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한우 생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한우생산수량의 목표 및 지역별 사육마릿수와 목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원방안 △한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경영개선 계획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계획이 종합계획에 부합

한다고 인정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인증, 인증 농가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우산업발전지원단' 운용

더불어 한우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의 '한우산업발전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이 지원단에서는 주로 한우의 번식을 향상 및 수급조절, 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료절감을 위한 사료개발·보급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시책 및 재원 정부가 담당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산업의 번식기반을 보호하고 한우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사육마릿수와 사육규모의 제한 등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과 관리도 정부가 수립해 시행하도록 못박았다.

수급조절 위한 도축·출하시 장려금 지급

한편 수급조절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한우를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한우농가가 한우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도축장려금’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체급식 소비목표 설정 공개

이와 함께 한우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농식품부령으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설정·공개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이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단체급식 등에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 농가나 생산성이 낮은 한우농가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과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도축장의 증설·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 구축과 축산물종합물류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㉞



미니인터뷰

한우산업 체계적 육성·소비 촉진 송아지안정제 위임입법한계 규정

“한우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한우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해야 할 송아지안정제의 내용이 대부분 송아지 생산안전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어 위임입법한계를 이탈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했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한우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 체결로 한우의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한우 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한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도 송아지생산안전운영요령을 변경해 송아지 생산안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한우산업발전법의 핵심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한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우는 우수성에 비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국제적 브랜드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 외국의 수출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국

에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한식세계화와 함께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 한우산업을 뒷받침하고, 한우의 우수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



한우산업 피해 1조109억원 달한다

영연방 3개국 FTA...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10월중 국회비준 반대 궐기대회 예정

한우협회, 실질적 피해대책 강력 촉구



지난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한·뉴질랜드 FTA 대책은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2015년도에 발효된다고 가정 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주 16,523억원, 캐나다 4,80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축산업이 총 17,573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육우의 피해가 10,109억원으로 가장 커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다.

FTA대책 기본방향

1) 축산업 대책 세부 추진방안

① 경쟁력 강화 :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투자자 규모 확대 및 지원규모를 연장하고(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번식용 89) 농가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며('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15~'24년간 총 20개소) 및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추진('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할 예정이다.

② 우량종축 생산, 고급화 : 암소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 등을 통한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할 계획이며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3개소), 우수 수정란 공급('15 : 200마리분 → '18이후 : 4,000),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 특성화사업단 운영('15~'19)하며,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 표시대상 : 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에 표시)

③ 유통비용 절감 : 농협 및 품목조합 등을 중심으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를 구축한다. 한우의 경우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농가-지역조합-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 구축(중앙회 도매점유율 : '13년 18.6% → '20년 50%)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소비자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우 직거래 활성화 신규 지원('15~'22년간 전문판매점 160개소 설치 지원)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매뉴얼 개발('15) 및 경영 컨설팅 신규 지원('15~'19년간 총 500개소)한다.

④ 수급조절, 수출기반 구축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성화하며, 관측·통계(한우 수급모형 등)를 정비한다. 또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관리 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며('15년 원료구매자금 260억원 등), 검역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지생태축산 기본모델(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을 마련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농가 사료직 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2.5%)하고, 도축·가공업체 지원('14 : 300억원 → '15 : 500), 가축계열화사업('14 : 90억원 → '15 : 150)의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해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도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완화('14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한다. 다만 공제한도(현행 5억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은 농지·초지만 해당, 생축·시설 등 미포함)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산 기자재 5종(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양파·마늘망)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 축사용지양도세를 '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하며, 피해보전비를 상향 검토 및 운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15년 발효 가정시 : 직불('11~'21 → '24년까지), 폐업('11~'16 → '19년까지)]

3) 신규사업 소개

- ① 가축질병공제시범사업('16년 신규사업) : 지역별 가축질병공제조합을 설립, 거점별 산업동물 진료소를 개설해 축산농가 방문·예찰·진료 등 방역사업 수행한다.
- ② 한국형 메즈거라이 경영 컨설팅('15년 신규사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비와 컨설팅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15~'19)한다.
- ③ 한우 직거래활성화 지원('15년 신규사업) :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냉장·냉동 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 조리, 기타 부대시설 등을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금리 3%)이다.
- ④ 약취저감시설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15년 신규사업) :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약취저감시설을 지원하며,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 설립, 운영한다. 또한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 ⑤ 친환경축산물 유통활성화 및 직거래지원('16년 신규사업) : 친환경축산물 직거래 매추자금 지원할 방침으로 '16년도 5개소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80%(연리 3~4%, 1년 일시상환)이며, 주관기관은 농협이며, 생산자단체, 생협, 유통업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⑥ 가축질병 대응('15년 신규사업+지속사업) :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을 지원(국고보조 50%)하며,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 한우농가의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국고보조 50%)한다.

한우협회, 국회비준 반대 결기대회 예정

한편 한우협회는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한우농가 결기대회를 10월 중 진행하고자 결의했다.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의하며 한우산업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영연방 FTA대책으로 △FTA지원 특별법 개정, △무역이득공유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예산지원, △한우산업 발전법 추진, △수입보장보험 도

입 등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시군지부별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설득을 하는 한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체결 시 한우산업은 한·미 FTA보다 더 큰 피해를 입어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한우농가의 결집을 당부했다.㉞



한우뼈로 건강 챙기세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적

한우자조금, 한우 뼈 부위별 건강기능성 연구 발표



한우농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영양가치를 느끼지 못해 소비가 무뎌져 천덕꾸러기로 몰락한 한우 부산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우자조

금은 '한우 뼈 부위별(사골, 꼬리, 우족) 국물의 건강기능성 연구'용역을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인의 건강과 젊음에 대한 관심 고조에 발맞추어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이 골격강화와 피부탄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기능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한우 뼈를 국물로 처리했을 경우 뼈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조골세포의 분화가 증가해 골격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반대로 뼈의 손실을 일으키는 파골세포의 분화는 감소돼 한우 뼈 국물이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뼈 국물이 피부세포의 증식률과 콜라겐 합성률을 증가시켰고, 피부세포의 노화억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 결과의 요약이며 결과 보고서 전문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조사연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우 뼈 부위별(사골, 꼬리, 우족) 국물의 건강기능성 연구결과 요약

🔍 한우 사골 국물의 조리 최적화

전처리 방법으로 2시간 침지 후 10분 데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적합하다. 조리방법은 한 번에 물을 모두 붓고 끓이는 것보다 동량의 물을 세 번에 나누어 끓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능평가 결과를 보인다.

🔄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기능성 성분 분석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칼슘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은 한우 꼬리 국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며, 콜라겐은 한우 우족, 사골, 꼬리 국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콘드로이친황산은 한우 사골 및 우족 국물, 그리고 꼬리 국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구 결과

한우 뼈 부위(사골, 우족, 꼬리)별 국물이 피부세포의 활성, 피부의 노화 예방, 골격강화, 그리고 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우 사골, 우족, 꼬리 국물을 적정량 섭취할 경우 현대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피부 노화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우 뼈 부위별 국물제품 세분화를 통한 가격차별화의 가능성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 가치 재조명 캠페인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

축산자조금연합회,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소비 위축은 물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축산농가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 축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한우, 한돈, 우유, 닭고기, 계란, 오리, 육우, 양봉, 사슴 등 9개 축산 자조금으로 구성된 축산자조금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추진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축산자조금연합회는 축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육류와 채소의 균형 잡힌 식습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이는 각종 언론

을 통해 보도됐다.

축산자조금연합회는 방송 PPL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축산물의 장점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동시에 잘못된 식습관 등에 대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영·유아의 빈혈을 철분제가 아닌 쇠고기로 구성된 식단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축산업이나 축산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KBS, 채널A 등을 통해 축산농가 체험, 축산물을 통한 건강 밥상 등을 소개하며 축산업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구성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리플릿, 애니메이션, 옥외광고 등도 기획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우가격 안정화·소비확대 위해 예산 조정

제3차 관리위원회 개최...예비비 10억 투입



한우자조금은 하반기 한우가격 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 광고비 등에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4년 제3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예산안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TV·라디오광고에 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에 2억4,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소비홍보 예산은 총 59억5,55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수급안정사업으로 한우소비활성화지원에 2억원, 한우니눔행사에 8,610만원 등을 증액했다.

한우자조금이 하반기 예산을 조정한 것은 추석명



절 이후 한우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TV광고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한 소비홍보를 통해 한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또 연초 강원도의 폭설과 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해 한우국밥 나눔 행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기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한우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㉔

한우결핵 청정화 박차 가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한우질병박멸협의회' 출범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한우 결핵을 박멸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다.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는 한우질병방역(결핵박



멸)협의회가 지난 8월 28일 출범, 한우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질병방역협의회는 앞으로 한우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한우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한편 민간기구로 정부에 정책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어 한우 결핵병 발생 동향과 단계적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청정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한우 결핵병 퇴치와 관련된 연구과제 발굴, 농가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등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생산자는 물론 정부, 지자체, 기관 및 단체, 학계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과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㉔

한우육포와 함께 귀성길 졸음예방!

한우자조금, 추석맞이 ‘교통안전 특별 캠페인’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5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추석연휴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우육포와 교통안전물품을 나눠주고,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추석 교통안전 특별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을 접한 귀성객들은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한우육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육포를 씹으면서 운전길의 지루함을 달래고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며 한우육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지난 8월 교통안전공단과

2014년 추석 교통안전 특별 캠페인을 공동 추진해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과 한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서기도 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강성기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한우육포를 드시며 졸음운전 등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 한우만 판매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종합적 심사 통해 총 325개소 발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9월 3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발표회를 개최했다.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사업은 한우소비촉진을 위

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함께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찾아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서울, 인천·경기, 강원 등 전국에서 접수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총 325개소를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했다.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우리한우판매점은 단순히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라 청결도와 같은 위생적인 측면과 친절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중하게 선정했다”며 “선정점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우 소비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소득유지 위한 ‘한우 목표두수’ 설정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 수급현황별 세부대책마련 필요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제2축산 회관에서 한우목표 두수 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15년 이후 한육우 목표두수를 264만~273만마리로 추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적정 사육두수란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소비측면만을 고려해 목표두수라고 용어를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육두수 변화에 따라 9단계로 세분화된 대응 매뉴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표 참고>.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대해 보다 세



부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으며, 실무추진단회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력제를 근거로 한 통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㉞

한우 목표 두수에 따른 단계별 관리

구분	1	2	3		4	5
	부족단계 (증가세)	적정수준 접근단계 (증가세)	적정단계	적정단계 (적정~초과)	과잉 단계 (증가세)	위기단계
대응 방안	- 입식/번식독려 - 사육 두수 자연 증가세로 별도 개입 없음.	- 암소 입식 및 번식 자제 권고 - 입식관련 정부 지원 단계적 축소 - 시장기능활성화	- 일체의 생산장려 사업 중단 - 시장기능 유지 - 소비촉진 활동	- 시장기능 유지 - 소비촉진활동 - 사육두수 증가세에 대한 예의주시 (관측, 정보 제공 강화)	- 생산감축 유도시기 - 주의경보 발동 - 소비촉진활동	- 생산감축 유도시기 - 위기경보발령 - 관측정보제공강화 - 가격폭락대응 - 소비촉진활동

구분	6	7	8	9
	과잉 단계 (감소세)	적정단계 (초과~적정 감소세)	적정하위단계 (감소세)	부족단계 (감소세)
대응 방안	- 자연감소세로 크게 개입하지 않음. - 주의경보 시스템 유지 - 소비촉진활동 - 시장기능활성화	- 시장기능유지 - 생산장려정책 준비	- 암소 입식 및 번식 활성화 유도 - 입식지원금 단계적 증가 - 지자체 · 축협등 -생산장려사업 추진 - 위기경보 발령	- 암소 입식 및 번식 장려시기 - 입식지원금, 축사시설 현대화 - 지자체 · 축협등 생산장려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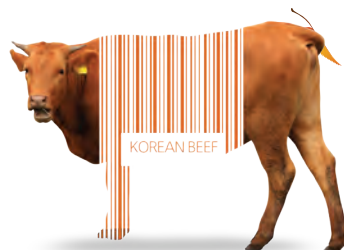
한우 도매가격·송아지 가격 전년보다 상승 중장기적 사육 지속 감소...가격 상승할 듯

지난 2011년 이후 정액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가 일정할 경우, 한우고기 공급이 줄어 2015년까지 도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 2016년 이후에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수급의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우단기 가격 전망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한우		9~11월	
		2013년	2014년
큰소 (1등급)	산지(600kg)	500~516만원	503~539만원
	도매(지육kg)	13,921~14,3489원	14,000~15,000원
수송아지(6~7개월)		201만원	250~270만원



9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평년 (’09~’13)	2013년		2014년		대비(%)	
				6월(A)	7월(B)	6월(C)	7월(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654,734	62,614	74,061	60,509	72,741	△3.4	△1.8
경매마릿수(마리)			246,000	32,548	39,309	31,943	41,684	△1.9	6.0
도매시장 경락가격(원/kg) (수취가격, 천원/마리)	평균		14,167	11,790	12,039	14,145	14,474	20.0	20.2
	거세우		15,256	13,299	13,575	15,343	15,317	15.4	12.8
	비거세우		10,913	9,360	9,142	11,056	11,277	18.1	23.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190	3,202	4,216	4,420	32.2	38.0
	송아지	암	1,983	1,039	1,010	1,789	1,982	72.2	96.2
		수	2,124	1,811	1,827	2,642	2,756	45.9	50.8
	불고기(1등급/kg)			33,287	29,810	29,300	33,860	34,420	13.6
등심(1등급/kg)			64,477	59,480	58,940	64,220	64,160	8.0	8.9

* '13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5,406천원/600kg, 통계청), 경영비(4,434천원/600kg, 통계청)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한우농가 소득 추정('14. 9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7,823	6,384	4,434	1,950
1+	15,926	5,705		1,271
1	14,616	5,235		801
2	12,553	4,496		62
3	10,789	3,865		△569

* 경영비 : '13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434천원/600kg, 통계청)

정서적 안정·소외감 극복...노인복지 실천 농촌 어르신 '말벗서비스' (Phone-Care)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수가 크게 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눈에 띄는 것이 홀몸 어르신 말벗 서비스다.

[출처 : KTV국민방송, 파이낸셜 신문, 뉴시스]



매주 1회씩 안부인사·불편사항 확인

농협중앙회는 농촌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 극복 등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 '농촌 어르신 말벗(Phone-Care)'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매주 1회씩 농협 고객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인사와 건강, 각종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교육,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전화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해준다.

또 해당지역 조합 담당자와 행정기관 사회복지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홀몸 어르신들을 도와 주거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노인대상 보건 의료 및 교육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해준다. '농촌 어르신 말벗'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에 신청해 서비스 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약 930여명의 Phone-Care 서비스 상담직원을 두고 체계적인 복지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 만들기·지팡이 지원 등 다양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말벗 서비스와 지역별 홀몸 어르신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원격장치로 실시간 안전을 점검하는 'u-care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며 요구가 많아질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을 받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번 말벗 도우미 사업도 활기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콜센터(129)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된다.㉔

알려드립니다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개선 안내

현행 지역 농축협간 유통방식으로 공급조합과 구매조합간 장거리 유통물량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유통비가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 및 경영체와 축산농가간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지원되도록 개선됐다. 단 생산자 이력 및 품질 등급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해야만 유통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업대상자

조사료 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 지원대상

생산자(지역 농·축협 및 경영체), 소비자(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TMR공장, 축산농가, 유통센터 등), TMR공장(정부보조TMR공장 제외)

»» 사업비 정산 절차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축산농가·업체간 거래분에 대해 소속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유통비 보조 신청 → 축산단체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정 및 지급(제출서류 : 축산농가·업체의 조사료 관외 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사본, 조사료 경영체의 관외공급 확인서, 조사료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계근증명서)

»» 유통비 정산

'14년 11월 정산 후 자금 배정받아 지급

»» 지원내용 및 기준

- ① **장거리 운송비** : 지원 대상 조사료를 타 시·군으로 100km 이상 유통할 경우 실운송비의 40% 이내에서 지원(30원/kg 한도),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10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100km 이상이면 지원 가능, 실운송비는 운송업체에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② **생산구축비** : 생산주체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 시 생산구축비 지원(5원/kg)
- ③ **유통축진비** : 조사료 대량 사용처인 TMR공장이 생산주체로부터 국내산 조사료를 연간 5백톤 이상 타 시·군(100km 이상)에서 구매시 유통축진비 지원(10원/kg)



애독자 퀴즈

한우농가의 많은 소식과 의견을 전하기 위한 독자코너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주제와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글(A4용지 10포인트로 2/3), 사진과 그림은 1개로 제한됩니다. 아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소식지에 게재 시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애독자 퀴즈입니다. **한우자조금에서는 부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한우 뼈 부위별 건강기능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영향 중 하나를 적어 주세요.** 애독자 퀴즈에 참여하실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이메일 접수불가).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7-878 (독자코너 투고용 이메일 : 025251053@hanmail.net)

9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이준명(전북 진안군), 최종운(충남 당진시), 윤경자(충남 홍성군), 고복자(경남 창원군)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한우**니까!

한우는 고기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지글지글~ 한우가 익어가는 맛있는 소리 들리세요?
우리 가족 식탁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한우**입니다!

